

“무더위 날렸다”…제27회 무안연꽃축제 성황리 폐막

연꽃 아름다움에 관람객 몰려
청정 자연…휴식과 힐링의 장
8월 말까지 연꽃 개화 시즌
회산백련지, 연꽃 축제 계속

제27회 무안연꽃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정 자연이 주는 휴식과 힐링을 통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드넓은 회산백련지를 배경으로 한 야간 조명은 연꽃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연빛달빛여행으로 한여름밤의 연꽃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캠핑 텐트는 휴식과 힐링을 더해 줬으며 개막 축하쇼와 연꽃愛 콘서트, 화양연화 콘서트, 연꽃 군민가요제 등 다양한 공연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어린이 독서 골든벨·청소년 사생실기 대회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특히 제16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열띤 경쟁 끝에 조순주씨의 ‘불낙현미라이스칩 피자’와 연잎고구마양갱이 대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무안의 맛을 담은 디지털 여행!’이라는 주제로 펼쳐졌으며 전국 53개 지원 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현장 경연을 펼쳤다.

또한 요리경연 외에도 무안의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와 연근’을 이용해 만든 ‘고구마 샐러드빵과 연근차’를 관광객들에게 시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연이 종료된 후에는 대회 출품작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받았다.

군민 화합의 장인 읍면 연꽃 올림피아드에서는 9개 읍면이 다양한 레포즈 종목으로 경쟁을 펼쳤으며, 1등은 일로읍이 차지했다.

이 밖에도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연

꽃죽육장, 피크닉도시락만들기, 소방안전 체험, 전통놀이체험, 황토마사지&족욕체험, 황토맨발걷기 등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어 즐기는 무안연꽃축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며 “내년에는 더욱 철저히 축제를 준비하여 무안지역 관광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가 끝난 이후 연꽃은 8월 말까지 계속해 개화할 것으로 보이며, 방학과 휴가를 맞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야와 물놀이장은 8월 25일까지 계속 운영된다.

무안=김행인 기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시행
완도군,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완도군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지원 신청은 관련 구비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발급되며,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별 제공 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하며, 현재 완도군에 등록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은 2개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61-550-5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신안군

신안군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했으며 지난 5월 접수된 사례를 내부 검토 후, 적극행정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3건을 선정했다.

가장 우수한 사례로는 ‘햇빛아동적금’ 정책을 선정했다.

햇빛아동적금은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햇빛 연금 제도를 확대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농협과 업무 협약으로 7.5% 이율의 적금 상품 출시를 통해 지역 아동의 학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은 정책이다.

다음 우수사례로 ‘1004굴(개체굴) 양식 6차 산업화 실현’이다.

국내외 고급 브랜드·백화점 등 수요처가 많아 상품 잠재력 및 부가가치가 높은 1004굴에 대해 기반 시설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품 가치 보전 노력을 통해 어가 소득을 확대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이다.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정원 조성 정책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조례를 제정함과 별도로 금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상위법 위배 여부 검토, 법제처 질의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를 확보했다.

위 3건을 포함해 이번에 접수된 8건의 사례는 신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 및 평가한 것으로, 적극행정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신안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며 동시에 주민 편익을 기대·창출해 낼 수 있는 사례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여름휴가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진도군, 세액공제·경품 등

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인증 이벤트를 연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진도군을 향해 기부해 주시는 기부자들에게 진도군의 특별한 특산품 꾸러미를 8월 한 달간 지급해 드리는 경품 이벤트이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진도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 시 자동응모가 된다.

경품은 기부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3만원 상당,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만원 상당, 100만원 이상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9일 진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다자녀 가정 지원책 마련
해남군, 양육장려금 등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2년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자녀 가정에 양육장려금과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해남군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장려금과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1학기 최대 150만원, 최대 8학기 동안 학비를 지원한다.

특히 다자녀 가정 양육장려금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해남군민이라면 셋째 이상 모두에게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년 동안 전국에서 최장기간 지원하는다.

또한, 해남군 보건소에서는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시 이용료 중 70%를 감면해 주어 다자녀 가정의 출산 장려에도 힘쓰고 있다.

그 밖에 수도 요금 감면, 해남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등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11여 종의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모든 다자녀 가정에서 누렸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에서 전국 공직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2024년 다산청렴교육이 공직자들의 큰 호응 속에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상반기 다산청렴교육 성료

강진군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에서 전국 공직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2024년 다산청렴교육이 공직자들의 큰 호응 속에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따라 청렴과 애민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다산청렴교육은 2개 정규과정(다산공직관 청렴교육,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과 1개 수시과정(다산체험 청렴교육), 1개 특별과정(다산가족캠프)을 운영 중으로 매년 입소문

을 타고 교육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전국 최상위 교육에 속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산청렴교육은 지난 7월 12일, 제9기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과정이 종료됐다. 상반기동안 36회 교육을 통해 1,759명의 공직자가 교육을 수료했으며, 교육비 수입으로 4억4천2백만 원을 벌어들였다.

교육비는 버스 임차, 숙박, 식사, 체험, 간식 등으로 관내 업체에 쓰여졌으며, 교

육생들이 ‘목야청정’ 등 행사 참여, 자유시간, 교육 후 추가 숙박도 이어지며, 쇼핑, 소모임 등을 통해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면 교육비 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역 내에 소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에는 정규과정 15회, 800명(신청 대비 71%)과 현재까지 확정된 수시과정 16회 850명을 포함해 총 31회, 1650명에 대해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수시 과정이 추가로 접수되면 교육 횟수와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쌀 팔아보자”…영암 쌀 마케팅 성황

소비 촉진 범군민운동 등

영암군이 지역사회 역량을 총동원해 영암 쌀을 판촉하는 ‘쌀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째 계속 하락한 산지 쌀값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80kg에 18만1148원이다.

영암군은 계속되는 쌀값 하락 추세에 대응해 농가 소득 확보 및 경영 안정, 쌀값 폭락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영암 쌀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영암쌀 소비 촉진 범군민운동’으로 26일 현재 10kg들이 친환경 달마지쌀 2537포의 판매 주문을 받았다.

택배비 포함 특별할인가인 3만원에 쌀을 내놓아 7600만원 넘는 선주문을 받은 상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영암향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영암 쌀 레시피가 담긴 판매 촉진 편지 발송 채비도 마쳤다.

쌀 소비 범군민운동 이전부터 영암군은, 꾸준히 쌀값 안정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케팅 노력을 이어왔다.

이달 19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최고 유통업체인 노민(Nomin)그룹과 쌀 수출 협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협의를 거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영암군은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 1, 2차에 걸쳐 2023년산 식량원조곡 5346톤을 매입했다.

영암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와, 올해 5월 HD현대삼호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과 임직원 등이 영암 쌀 구매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기업 구내식당과 회사 임

직원들이 영암 쌀 등 지역 농특산품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암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처인 ‘영암몰’에서는 6월 ‘특별할인판매 기획전’으로 최대 21%, 7월 ‘여름특별할인판매전’으로 10% 싸게 영암 쌀을 판매했다.

올해 말까지 지역 집단급식소가 영암 쌀을 구매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영암쌀 소비 촉진 범군민운동과 병행해 영암군은, 이달 말까지 2023년산 3차 식량원조곡 924톤을 자체 매입할 예정이다.

8-9월에는 서울 은평구 등 쌀 소비자들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 직거래 장터를 열고 판촉에 나서고, 추석 전후로는 영암몰에서 20% 할인전도 기획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농업의 근간인 쌀 판매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쌀케팅’에 담아 대대적인 영암 쌀 판매 촉진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영암 쌀이 최선의 선택이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